

大學 新入生の 효과적 指導 方案

權 容 萬

(江陵大 學生指導研究所 所長)

大學生活에 보다 잘, 그리고 보다 빨리 適應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종래의 단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은 反省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그 效率인 方案으로서 分擔指導教授制나 上級學生들에 의한 長期間의 오리엔테이션에 重點을 두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計劃과 研究는 學生生活 研究所가 開發하여 이들에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I

新入生, 新入社員, 新人, 新兵 등의 용어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그 役割이나 經驗을 처음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에게 소정의 목표에 보다 잘, 그리고 보다 빨리 도달하게 하여 바람직하게 적응하기 바라는 개념이 내포된 말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래에 와서는 비단 각급 학교뿐 아니라 많은 기업체나 단체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Orientation의 語源이 원래 라틴어의 Oriens에서 비롯된 것으로 東方, 해 뜨는 방향, 근본 방향을 뜻하듯이 대학생활을 처음으로 設計하려는 이들 新入生の 始發行動(entering behavior)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고등학교 교육과는 목적과

체제가 다른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新入生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모든 것이 새로울 뿐 아니라, 그들은 價値 및 方向을 再構成하려는 立場에 놓여진 個體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들 신입생은 한정된 학습내용을 그것도 他律的으로 大學入學(試驗)만을 목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였고, 특히 敎科敎育에 치중하였으며 각 교과에 한정된 범위를 그것도 暗記 위주로 敎사의 指示的 方法에 의하여 훈련되었으며 학생 개인의 內的 必要가 아니라 학생 개인의 外的 必要에 의하여 他律的으로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傾向이 지배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深奧한 學問의 探究와 自律的 學習態度를 필요로 하는 大學生活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처음 계획하려는 신입생들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學校生活이나 學習 習慣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內的 必要에 의한 目的, 內容 그리고 方法이 강구되어야 하며 自律的 大學

生活의 이해와 態度가 요구되는 것이다.

II

大學이라는 새로운 교육상황에 직면한 신입생들은 經驗이나 새롭고 많은 情報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의 大學生活을 계획하고 조직하게 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조직에 의한 結果와 大學의 目的的, 意圖的 그리고 計劃的인 指導의 結果 사이에는 상당한 空間(gap)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공간을 우리는 教育的 必要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간을 메우는 一連의 過程을 教育活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지도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건강하고 슬기로운 適應을 그 目標로 하는 것이며, 적응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보람을 더욱더 促進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適應의 일련의 過程은 대학 및 대학생활이라는 환경과 학생 개인과의 바람직한 相互相關을 뜻하는 것이며, 학생 개인이 복잡한 환경조건에 자신을 舍致 또는 同化(assimilation)하거나 자신의 欲求充足을 위하여 환경을 改造하거나 하여 個體와 환경과의 관계를 調節(accommodation) 하려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처음 입학한 학생 개인들의 欲求와 대학이 학생 개인들에게 바라는 大學自體의 目標과의 사이는 相互 배격하거나 부정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受容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變數는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 개인이 될 것이므로 대학의 목표에 따른, 학생 개인들의 自己 形成을 위한 적극적 同化와 調節이 있어야 대학생활을 바람직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III

大學 新入生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각급학교에서 試圖하고 있는 것이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의 계획이며 각 대학의 學生生活研究소가 그 계획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 기간은 2~3일 또는 길게는 1주일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이들은 大學 및 大學生活을 이해할 도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도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1983학년도 강릉대학 학생들의 개인상담 事例數는 112회였으며 그 중 비학생생활과 관련된 상담은 35.7%에 해당하는 40회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각 학과에서 실시되는 신입생 지도에 대한 계획과 지도가 미비한 데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강릉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생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에 있어서는 大學校, 單科大學, 各學科, 分擔指導教授, 그리고 上級學生들에 의한 지도(peer group leader)를 위한 多元化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급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리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짧은 기간에 그것도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이었는데 비해 앞으로는 各學科나 分擔指導教授, 그리고 上級生들에 의한 지도 계획에 치중한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되어야 하며 그 기간도 I학기 내지 1년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한 지도가 보다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생활연구소는 이러한 多元化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단과대학, 각 학과교수, 분담지도교수, 그리고 peer group leader 들에 의하여 신입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생활연구소는 이러한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운영위원회나 資源人士의 叡智를 모아야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多元化 계획을 학생생활연구소가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教授自身들이 갖추어야 할 Guidance 나 Counseling의 理論的인 背景이다. 각 교과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교

수들은 생활지도나 상담에 관한 뚜렷한 目標나 理論的 背景에 관하여 그 必要性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즉 初, 中等敎師 養成에 있어서는 敎師養成을 위한 목적과 敎育과정에 의하여 목적적으로 양성되지만, 大學敎授가 되기 위한 특별한 敎育과정의 계획이나 제한은 하나도 없는 實情이며 다만 전공하고 있는 학문의 실적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질 등이 그 여건이기 때문인 것이다. 大學의 敎授가 되기에 앞서 먼저 敎育者가 되어야 하며 敎育者로서 지녀야 할 태도나 기능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大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大學敎授의 任務가 敎授(instruction), 研究(study), 그리고 指導(guidance)의 세 가지라면 敎授와 연구는 敎授 자신이나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關心과 制限을 두고 있지만 指導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이론적인 배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신입생 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양상은 學業成績(成就)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듯하며 大學敎育의 焦點이 學問에 限定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낡게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方向을 探索하려는 신입생들을 위하여 敎수자 자신은 이것을 위한 理論的 背景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항상 그것을 開發하려는 發展的인 態度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지도를 위한 계획이나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치로운 目的과 슬기로운 方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렇게 했을 때 大學生活를 처음하는 신입생들의 方向決定과 自己指導(self direction)에 발전적인 공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로운 목적과 슬기로운 방법은 각 敎수들의 經驗이나 想念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科學的, 實驗的인 準據에 그 기초를 두었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適應的인 成長과 發達이 促進될 것이다.

둘째는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分擔 指導敎授制의 活性化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제도는 비단 신입생을 위한 지도체제만이 아니지만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지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각 學科의 敎수들이 해당 소속학과 학생을 10~20명 정도씩 분담해서 지도

하므로 신입생으로는 가장 社會的 距離가 가장 작고, 대학생활에 있어서 敎수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한 制度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분담지도敎수제의 운영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듯하다. 이것은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학생지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무시하여 분담지도敎수의 態度, 役割, 그리고 機能 등에 관한 理解와 그 實現인 것이다. 일부 어떤 대학에서는 분담지도敎수의 태도, 역할, 기능에 관하여 학생생활연구소가 대학 자체의 敎수연수회나 敎수협의회 같은 모임을 통하여 그 계획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분담지도敎수제가 목적적,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 같다. 신입생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이 분담지도敎수제의 活成化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는 그 계획을 개발하여 부단히 각 지도敎수에게 정보와 방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입생 지도를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上級學生들에 의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료학생(신입생)들을 상급생이 Leader가 되어 지도하는 것을 뜻하며 이들 Leader의 선정은 각 학과 敎수들에 의하여 2,4학년 학생보다는 3학년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격이며, 신입생 약 10명당 1명 정도의 비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1~2週에 1회를 1~2학기 동안 걸쳐 장기간 실시하되 每回마다 Leader들에게는 충분한 事前指導를 前提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것에 필요한 계획과 지도는 학생생활연구소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의 일환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方案은 각 대학에 있어서 학생지도를 위한 敎授對 學生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줄 것이며, 신입생은 上級生과의 人間關係에서 同僚意識이란 차원에서 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이나 各學科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